

# '3퇴'와 평안

제 308기 2017년 11월 30일

2017년 11월 26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9,027만 명

## 2억 9천만 민중이 포기, 중공의 마지막 날 도래

[명혜망] 2004년 11월, 대기원은 시리즈 사설 '9평 공산당(약칭: 9평)'을 발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를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했고, 중국인들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3퇴'의 열풍을 일으켰다.

13년 동안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서 '3퇴' 성명을 한 사람의 수는 이미 2억 9천만 명에 달한다. 한편 중공 사당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은 중공의 악마 본성을 똑똑히 알고 마음으로부터 중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섰으로써 광명한 미래를 선택했다.

'9평'이 발표된 초기인 2005년, 중공의 심장인 중공 중앙당교에서는 25명이 집단으로 탈당 성명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탈당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중공 중앙당교의 각기 다른 부문 관원들이며, 우리 가운데는 노혁명, 노간부, 노당원이 있고, 중년과 청년 재직 관원이 있고, 정부부급, 국급, 처급 관원이 있으며, 일반 과원과 보통 관원이 있고, 박사와 석사 연구생이 있다. 우리 모두는 대기원시보 탈당 사이트를 통해 공산 사령 탈퇴 성명을 올리는 데 동의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중앙당교의 2천여 직원 중에서 90% 당원이 조건만 허락한다면 탈당을 할 것이다. 왜 탈당을 해야 하는지는 '9평'이 아주 분명히 밝혔다. 중공은 집안을 일으켜 세울 때부터 기만, 거짓말, 폭력, 살인을 기초로 삼았고, 각종 운동으로 살인하고 불구로 만든 중국인이 적어도 1~2억이므로 확실한 사당, 사교, 불량배 당이다."

시인이며 작가인 황상은 '9평'이 처음으로 독재 체제를 깊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9평'이 '3퇴'의 열풍을 일으킨 것은 곧 공산당과 그가 신봉하는 '주의'가 민심을 잃고 전면 붕괴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중공은 이미 운명이 다했고, 대세가 기울었다.

2016년 홍콩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시진핑이 반부패 호랑이 잡아리를 전개한 아래 중앙, 성, 지역 등 3급에서 243만여 사건을 입

안 수사했고, 처분을 받은 자는 237만여 명에 달한다. 전국 기율검사 계통의 압력 하에 회답이 되지 않은 고발 자료는 이미 500만 건을 초과해 100년이 되어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왕치산은 중공의 부패에 이미 절망했다."

2017년 6월 말까지 정부 측 통계에 의하면 중공 중기위(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군급 이상과 기타 중조부 등록 관원 440명을 입건 심사했고, 그중에는 중공 18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43명, 중공 중기위 위원 9명이 포함됐다. 청국급 관원은 8~9백여 명, 현처급 관원 6만 6천 명, 향과급 이하 당원은 134만 3천 명에 달한다. 이 통계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중공은 이미 병이 깊고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부패는 사실상 하늘이 이를 통해 파룬궁을 박해한 관원을 징벌하는 것이며, 반부패는 결코 이미 확정된 중공의 멸망을 바꿀 수 없다. 사실 '9평 공산당'은 일찍이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마쳤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1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실명으로 베이징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국제 사회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 민중 252만 명이 서명을 통해 베이징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고발했다.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서는 '3퇴' 총인원이 이미 2억 9천만 명을 넘어섰으니 '9평'의 작용이 아닐 수 없다!

'9평'은 민중에게 중공 악마를 비춰주는 '요술거울'이며, 중공을 철저히 해체하는 아홉 자루의 예리한 검이며, 중공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것을 돋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알게 하는 필독서다. '9평'의 전파는 중공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관건이다. 더욱 많은 민중이 '9평'을 읽고 '9평'을 전하여 중공을 해체하고 악마를 철저히 제거하는 큰 물결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중국 민중이 널리 깨어나는 날이 바로 중공이 철저히 해체되는 때이다.

## 덴마크 '의사의 날'에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 조명

[명혜망] 덴마크 의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의사의 날'을 2017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수도 코펜하겐의 벨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천여 명의 개업의사와 공공위생 및 의료설비 등 의료계 전업 인사가 참가했다. 비정부단체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은 세 번째로 '의사의 날'에 전시대를 세우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중공의 죄악을 덴마크 의료계에 알렸다. 수많은 덴마크 의사는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의사 데이비드는 생체 장기적출 반대 서명서에 서명을 한 후 말했다. "저는 (생체 장기적출이 일을) 압니다. 저의 한 동료는 심장외과 의사인데, 그는 국제 의학대회에 갔

다가 중국에서 온 의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들 병원이 장기 이식수술을 대량으로 하는데, 환자가 요구하기만 하면 아주 빨리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 동료는 너무나 놀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술 일정부터 잡아놓고 장기 이식을 하는 건 하나의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수요에 따른 살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제 동료는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와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알게 된 한 방송국 관계자가 말했다. "이 생체 장기적출은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엄중합니다. 저희가 돌아가면 이 방면의 보도



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알게 할 겁니다." 그는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처를 남겼다.

# 단위 영도 전 가족이 ‘3퇴’하여 복을 받다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이야기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다.

## 단위 영도 전 가족이 ‘3퇴’하여 복을 받다

[쓰촨 투고] 2011년 3월, 우리 단위 한 영도의 손자가 뇌막염에 걸렸다. 성 의원에 입원했는데, 9일 밤낮을 고열이 가라앉지 않자 회진을 돌던 교수는 고칠 수 없다며, 고쳐도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는 그 영도(내가 이전에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고, 그녀도 ‘3퇴’했다)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손자의 증세를 말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손자에게 빨리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쪼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워주라고 말하자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교수들도 모두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해도 바보가 된다면서 나중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포기해야겠죠?” 나는 희망이 한 가닥이라도 있다면 포기할 수 없다며, 먼저 파룬궁 호신부를 가져가 손자 몸에 붙이고, 손자에게 “파룬따파 하오, 쪼싼런 하오”를 외워 주면서 살펴보라고 말했다.

십여 일 후에 그녀를 만났는데, 내 손을 꼭 잡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손자가 돌아왔어요. 병이라곤 없는 사람같이 싱글벙글 웃고,

정신이 또렷해요. 교수들이 모두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마땅히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며, 모든 것을 사부님께서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고맙습니다. (파룬궁) 사부님! 고맙습니다. (파룬궁) 사부님!”

이번 일을 통해 그녀의 온 가족은 파룬궁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보았고, 온 가족이 모두 ‘3퇴’에 동의했다. 그녀 자신은 ‘전법륜(파룬궁의 주요 저서)’을 읽기 시작했고, 여러 해를 앓아왔던 고지혈, 고혈압, 고당뇨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현에서 시청으로 이동해 온 가족이 큰 복을 받았다.

## 겨우 열흘 만에 말기 위암이 완쾌된다

[대륙 투고] 나는 올해 49세인데, 2016년 불행히도 위암에 걸려 온종일 힘이 없고 식욕을 잃은 데다 미열이 가라앉지 않았다. 시내의 병원에 가니 의사들은 이미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가 우리 가족에게 말했다. “보통 이런 병은 치료해서 나으면 3, 5년 살 수 있지만,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비가 6만여 위안에 달해 돈이 모두 바닥나 가난

에 쪼들리게 되었다. 나는 온종일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우리 마을의 한 파룬궁 수련생이 나를 보러 왔다. 2008년 당시 그녀는 나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보여주며 ‘3퇴’를 하게 했고, 나도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녀는 나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진심으로 바라면 사부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날마다 정성껏 외웠다. “파룬따파 하오, 쪼싼런 하오.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온 가족도 사부님께서 나의 몸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정성껏 천 번 만 번을 외웠다.

“파룬따파 하오”를 정성껏 외우는 가운데 나는 신체가 날마다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발열을 느끼지 않기 시작했고, 천천히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체가 빠르게 회복되어 시력도 돌아왔다. 나는 이것이 파룬궁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후에 진찰을 받아보니 일체가 정상이었고 위암이 사라져 있었다. 그건 정말 기적이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지금 이렇게 빨리 낫다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나는 정말 너무나 격동되었다. 파룬궁에 감사드리고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 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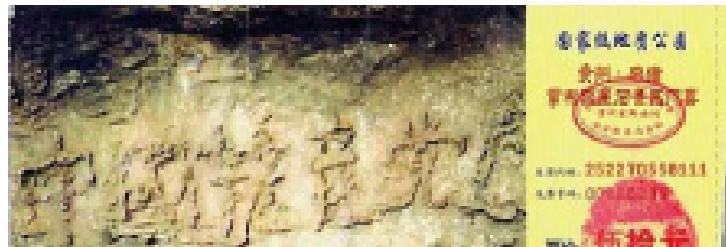
수많은 사람은 “탈당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거나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것이다. 탈당은 중국 공산당의 당 조직, 공청단 조직, 그리고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을 총칭하며 그래서 “3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를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이라 여긴다. 사실 이는 사람을 구하는 하늘의 뜻이다. 옛사람은 사람이 도덕을 말하지 않으면 천재인화가 닥친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도덕을 말하지 않고 무신론(사실 공산당이 믿는 것은 마귀 사탄이다.)을 퍼뜨리며,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하늘에 맞서고 땅에 맞서면서 나쁜 짓만 일삼았다. 1949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 8천여만 명을 살해했고, 지금은 또 ‘진(眞), 선(善), 인(忍)’을 믿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다. 심지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아 돈을 벌면서 살인을 하고 시체를 태워 증거를 없애고 있다. 중공의 죄악은 이미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하늘이 다스리는” 정도에 이르렀고, 하늘의 정벌이 곧 중공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소선대, 공청단, 심지어 공산당에 입당을 하면서 모두 자신의 일생을 공산당에 바치고, 공산당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이것은 당신이 생명을 공산당에 바친다는 뜻이며, 공산당의 한 분자로서 공산당이 저지른 일체의 범죄행위를 책임지겠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중공에 바치고 그를 위해 종신 분투하겠다는 독한 맹세를 한 당, 단, 대원들은 곧 중공의 순장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전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 (‘3퇴’) 성명을 하는 것이다. 다시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 주고 있다.

말해서 ‘3퇴’ 성명을 하는 목적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중공과의 관계를 끊고 과거에 한 독한 맹세를 폐기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중공의 관할로 돌아가지 않는다. 중공이 관장하지 않는 생명은 모두 신불이 관장한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각종 재난 속에서 신불의 가호를 받아 위험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3퇴’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만 인정을 받으며,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당신이 ‘3퇴’ 성명을 하는 데는 실명, 가명, 필명,

아명을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중공 조직 내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며, 해외 최대의 화인 매체인 ‘대기원’의 탈당 사이트에서 탈퇴 성명을 하는 것으로, 어떠한 위험도 없고,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지만,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생명을 지키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 하늘이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져서 일찍이 연령 초과로 자동 탈퇴되었다.” 혹은 “나는 당비를 내지 않는다.” 하늘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시해야만 인정한다.